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박지호	소 속	신소재공학부
학 년		학 번	
연수 국가	필리핀	해외 연수 기관	WNU STI
연수 기간	2019.01.01. ~ 2019.02.09.		

보고 느낌 점, 어학 연수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등을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사진 등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외국에 장기간 살아보고 싶었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영어 회화 실력도 늘리고 싶었기에 해외단기어학연수에 지원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바콜로드의 WNU STI 대학교에 해외단기어학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6주 동안 바콜로드에서 생활하면서 수업을 듣고 다른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6주 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진행해 주는 튜터들과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의 기존 영어 실력보다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어실력을 늘렸습니다. 6주 동안 지내며 매일 영어로 말하다 보니 저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 등 말하는 실력이 늘었으며, 또한 매일 영어로 듣다 보니 영어 듣기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처음 갈 때 부터 들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해외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험을 하고 왔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출국 할 때 여권, 미국 비자용 사진2매, 국제현금카드, 환전(달러, 페소), 어댑터 등을 필수로 다른 필요한 개인 짐을 챙겼습니다. 출국할 당시 한국의 날씨는 추웠으며, 바콜로드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바콜로드로 가기 전에 마닐라 공항에서 경유 하였는데, 마닐라 공항은 쌀쌀하였습니다. 또한 바콜로드의 날씨는 매우 더웠지만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았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페소 환전은 master, visa 등 해외 사용가능한 카드를 들고가 국제현금카드로 은행에서 직접 인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출할 때 마다 약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었으며, 페소 환전 부분에서는 달러로 바꾸어 가서 현지에서 직접 환전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 가게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나가지 않았기에 그냥 카드가 사용가능한 곳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콜로드의 교통수단에는 지프니, 트라이시클, 택시 등이 있으며, 지프니, 트라이시클의 경우 처음에는 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보니 지프니, 트라이시클의 사용법을 알게되고, 자주 가는 곳은 택시보다 저렴한 지프니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 보다 grab이라는 어플을 미리 깔고 가서 grab어플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더욱 저렴하며 유용하였습니다. 바콜로드의 circle inn 호텔이라는 곳에서 숙박하였으며, 학교는 호텔의 오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는 학교 앞의 카페테리아에서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현지식보다 한식 위주의 메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텔은 매일 방을 청소해주었으며, 다른 서비스도 매우 좋았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 생필품들을 한국에서 챙겨가지 않고, 호텔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의 SM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SM몰 뿐 아니라 숙소 근처에 아얌라몰이나 로빈슨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나 먹을거리 등 살 수 있었으며, 많은 음식점들과 옷가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관련 내용에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총 7개의 과목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그룹 수업이 총 2시간, 개인 1:1 수업이 4시간 씩 있었습니다. 각각의 수업 당 한 시간 씩 진행되었으며, 그룹수업은 grammar, discussion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개인별 1:1 수업은 idiom, pronunciation, writing, discussion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룹 야간수업을 한 시간 들었습니다.

그룹 수업은 4명 당 한 반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수업을 내내 같이 들었습니다. 개인별 1:1 수업은

각 과목의 담당 튜터들과 일대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수업들의 난이도는 바콜로드에 도착 후 토익시험을 보고, 토익 성적에 따라 수준에 맞게 수업 진행이 되었습니다.

idiom 수업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관용구나 숙어들을 배웠으며, pronunciation에서는 영어로 말할 때 제대로 된 발음 법을 배웠습니다. writing수업에서는 문법에 맞게끔 문단 글을 쓰는 법을, discussion에서는 지문들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튜터들과 얘기해 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콜로드에 6주 동안 지내는 동안 많은 체험을 하였고, 많고 다양한 경험,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매 주 주말마다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맵그로브 봉사활동이나 맘부칼 온천, 3박4일 보라카이여행, 놀이공원 등 다양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도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숙소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콜로드시청, Market Place, 라군파크, SM몰, 알라몰, The ruins 등 여러 장소들에 방문하며 놀러 다녔습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pop을 듣는 등 한국 문화나 한국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길을 지나가거나 일상 생활하며 지낼 때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한국말로 "안녕"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 주길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 있으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기에 인사를 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난 후 낯선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해 주는 것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또한 튜터들과 수업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식사는 맛있게 했는지 등 생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으며, 하루 일과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외모나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단기어학연수를 간 것이었으며, 6주 동안 해외에서 지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단기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과정과 바콜로드에 가고, 도착했을 때, 바콜로드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을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6주 동안 지내다 보니 외국에서 사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좋지 않았으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훨씬 느리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 많이 없었으며, 아무리 한국음식점이어도 한국에서 먹는 맛이 나지 않는 등 입맛이 안 맞아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른 교통수단이나 건물, 전력 등 많은 곳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로부터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니었기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어 실력의 부족함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지내고 배우는 동안 전체적인 영어실력의 증가보다 영어로 말하는 자신감이나 처음 보는 외국인과의 대화 등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상황들로 많은 경험을 하며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즐기다가 온 좋은 경험이었습니다.